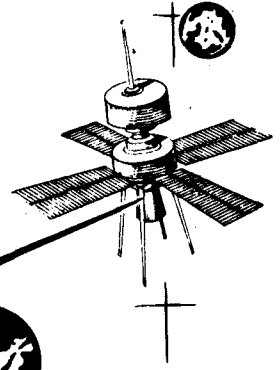


#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닭고기 수매비축

몇해전 경제잡지에 실린 통계수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유럽의 작은 왕국에 계산이 빠른 왕이 있었다. 왕에게는 이름답고 귀여운 공주가 있었다. 왕은 이웃 나라의 왕자나 귀족 중에서 사위감을 고르게 되는데 프로포즈 해오는 왕자는 왕과의 면접시험에서 합격한지이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왕의 질문은 “그대 나라의 국력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얼마만큼 신장하리라고 전망하는가? 수치로 대답하라”는 것이었다.

왕자는 자기나라의 국력을 계산해서 이렇게 답변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농업과 광업의 두가지입니다. 현재를 100으로 하면 광업은 5년 후에는 50으로 될 것이 예상되지만 농업은 3배인 300으로 예상되므로 전체로써는 평균해서 175가 되어 75%의 국력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말을 들은 왕은 다음과 같이 왕자의 계산을 뒤집어

버렸다.

“물론 왕자의 계산으로는 장차 국력이 신장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나의 계산으로는 쇠퇴하는 나라로 되네. 자네는 현재를 100으로 했지만 나는 5년후를 100으로 하여 현재를 계산하면 현재의 농업은 33.3이 될 것이고 광업은 200이 될 것일세 이것을 평균하면 현재가 116.7인데 대해서 5년후는 100이 되는 셈인데 그런 나라에는 나의 귀염둥이 공주를 줄 수 없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같은 사실이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고의로 통계수치를 사실과 멀게 조작 계산해서 발표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더군다나 통계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나 현실감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쉬운 양계농가의 경우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

직접 닭을 기르는 생산자와 부화장과 사료공장측이 각기 통계수치를 갖고 설명하면 어느 것이 올바른 전망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진실은 오직 하나인데 왕자의 계산방법으로는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도 같고 왕의 계산방법으로는 나쁠 것 같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주장은 같은 사실을 놓고 서로 해석이 다르다.

회사가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빛을 얻어 커지면 근로자나 그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주주들만 좋아진다. 그렇다고 주주가 신규로 투자해서 회사가 커

지는 방법은 주주들이 원치않는다.

이번 육계값의 폭락은 통계수치의 분홍빛 해석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정보에 어두운 업자들이 받아들인 것도 한 원인이 된다.

수매비축에 있어서 육계 1kg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얼마인가도 각기 차이가 너무 심하다.

생산비란 농가가 닭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으로 진실은 하나인데도 계산 방법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앞으로는 통계수치의 활용이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이용하는 양계농가도 진실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통계수치를 관과 민과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각기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부화장과 육계업자의 판단기준이 서로 정반대 일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통계수치의 나열은 혼돈만을 초래할 뿐이다.

## 생산자들의 의견수렴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에 농민이 70%에서 23%로 대폭 감소하는 경험을 하였다.

우리가 미처 정신차리기도 전에 농가부채가 1조원이 넘었다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농가부채정리를 위한 특별계획이 발표되고 농촌학교의 텃빈 교실이 TV에 비춰지고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 노인들의 모습이 처량하게 나타나면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진행중이다.

농촌을 지키겠다는 청년들이 신부를 구하지 못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면서 우리 농촌은 힘없고 가난하고 힘든 농사일을 하는 인기없는 계층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힘없는 농민들의 의견이 농민의 힘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최근 몇일동안에 일어난 3 가지 사례를 소개한



다.

첫째사례, 지난 19일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기술진흥관 대강당에서 헌법개정 농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카톨릭여성농민회, 경상낙우회, 대한양돈협회, 전국농민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촌운동자협의회, 전국계우회연합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한국양곡은행연합회가 주최가 되어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가운데 진정한 민주헌법이 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날 농축산물의 가격보장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소작농금지과 농민의 단결권 등을 농민의 소리로 집약하였다.

학계에서도 김성훈(중앙대), 김동희(단국대), 장을병(성균관대), 박용일(변호사) 씨가 정당에서는 민정당 김종위의원(정책실장), 민주당 김성식, 김봉호의원(농수산분과위원) 이 참석 하였다.

농민의 목소리는 몸으로 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날의 농민의 소리는 민정·민주 양당의 8인정치회담에서 새헌법에 삽입하기로 극적으로 합의 되었다.

농민의 조직화된 힘의 위력에 농민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임의 연락 주신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맡았었다.

둘째사례,

소위 우유 생산조절 과동으로 불리워지는 낙농가들의

조직화된 목소리이다. 정부의 우유생산조절을 위한 입법 예고가 나오자 7월29일 서울우유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우유생산조절과 치즈생산을 위한 원료유(乳) 수입을 반대하는 등 낙농생산자들이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8월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대규모 전국낙농인 대회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이들 낙농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유생산조절을 철회하고 고고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우유 소비확대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재벌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롯데의 뉴질랜드의 원료를 일부 수입하는 조건으로 치즈합작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당초허가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정부가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고 낙농인의 의견을 전폭 수렴하고 재벌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 국내 양축가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등 최근의 사태변화는 그저 놀라울 뿐이다.

세계사태,

금년 7월부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통조림과 소세지를 제외한 소세지 유사제품의 수입이 개방 되었다.

약삭빠른 재벌기업들이 세계유수의 육가공회사와 국내 대리점 계약을 위해서 지난 해부터 작업이 시작 되었다고 한다.

덴마크의 튜립회사는 한국으로 부터 테렉스 폭우가 쏟아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번 부여·논산 지방에 쏟아진 폭우를 연상하면 될 것 같다. 튜립사는 국내 판매조직이 강한 해태를 한국대리점으로 선정하였고 해태도 신용장을 개설하고 런천미트를 수입 통관까지 마쳤다.



그러나 국내 양돈업자들의 거센 항의에 굴복하고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재벌들이 농민단체나 생산자들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간 생산자 단체를 통한 꾸준한 조직강화로 힘모여졌기 때문이다.

몽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진리를 이번에 농축산인들이 실제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양계업계도 몽치지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양계산업의 앞날이 매우 밝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천에 옮기는 것만 이루어 진다면 말이다.

## 양축가들의 설 땅

우리의 전통사상으로 선비정신을 들 수 있다. 선비정신의 장단점을 많이 알 수 없으나 체면을 중시하고 황금보기를 돌보듯 한것 등은 우리가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경제개발을 하면서 체면이 밥떡여주는 것 아니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황금을 벌라고 우리의 정신문화는 바뀌어 버렸다.

북부인이 등장하더니 우(牛) 부인도 생겨났고 견(犬)부인이 대만 일본에서 개를 몰아 왔고 유럽쪽에서까지 개들을 수입해왔던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이다.

재벌기업이 돼지까지 기른다고 문제가 되었고 축산업의 모든 분야에 이미 재벌기업의 영향력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 양축가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독과점의 횡포 때문이다.

선비정신이 제대로 유지되었다더라면 문제가 없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란이나 닭고기가 조금만 생산이 과잉된듯 하면 무자비하게 생산자들을 짓밟는 상인들의 횡포에서 보아왔듯이 독과점의 횡포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부(富) 축적하는 방법으로 그 동안

부동산과 돈장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토지·자본·노동의 삼요소 중 노동이 제외된 것으로 최근 노사문제로 분출되고 있다.

축산업은 다행히도(?) 도시근교에서 초기에는 넓은 땅을 필요로 하였고 배합사료공장과 함께 유산스나 미국의 CCC 자금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돈장사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기록에 나온 것이 BC16 세기경의 가나안지방의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서구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은 이집트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토지를 분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철저한 토지소유의 공개념은 토지의 계파별 공동관리 형태로 나타나고 설사 부득이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49년에 한번씩은 회년(회년) 제도를 두어 무조건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아랍왕이 마

음에드는 포도원을 고가로 매입하려다 실패한 것도 이러한 배경때문이다.

이들은 풍요와 물질만능의 종교인 바알신(神)과의 투쟁이 계속되며 바알신이 득세할때는 멸망하고 야훼신(神)을 섬길때는 부강해진다.

물질만능의 사상위에 자유가 강조되면 약한 양축가들은 설 땅을 잃는다.

지난 19일 농민대표들의 헌법공청회에서 토지의 공개념 제 도입과 철저한 소작농제도 철폐 및 재벌기업의 농축산의 생산분야 참여를 막아달라고 외친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야훼사상과 바알사상의 투쟁이 본격화 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갈멜산에서의 일전(一戰)이 오기전에 바알사상을 버리는 것이 모든 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 한 셈이다.

발전이란 현실인정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다.

양계

## 마니나 백색산란계의 경제성 선언

더 굵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랑스런 국산 닭 마니나 백색산란계는 우리 나라 양계환경과 시장 여건에 맞추어 경제성이 높도록 꾸준히 개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받으시는 마니나 백색 산란계는 난중이 더 굵어지고 산란수가 더 많아졌으며 난각이 더 단단하게 개량된 새로운 타입입니다.

### 마니나 백색 산란계의 경제 형질 비교

경제형질	87년형 마니나 종전의 마니나		개량정도
	백색산란계	백색산란계	
50% 산란인량	152	154	2일단축
피크산란율(주평균)	91.8	90	1.8%개선
헨하우스산란수(82주령)	321.5	311	10.5개 개선
난중 30주	56.7	55.3	1.4g개선
난 형 계 수	78.8	78.0	
난 비 중	1,079	1,075	난각이 단단해짐